

## 자유로움이 돋보이는 유쾌한 공간의 말, '다르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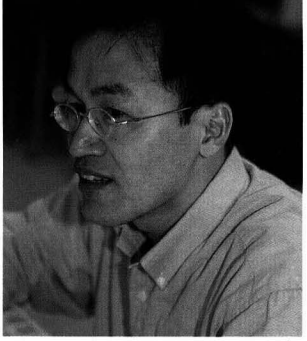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그린비 | 고미숙 지음 | 416쪽 | 값 13,900원

《니체의 위험한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린비 | 고병권 지음 | 432쪽 | 값 13,900원

《이성은 신화다, 계몽의 변증법》 그린비 | 권용선 지음 | 272쪽 | 값 10,900원

그린비 '리라이팅 클래식'은 말 그대로 고전을 오늘의 시각으로 다시 읽고 쓴 작업의 산물이다. '고전'이라 함은 원전과, 그것을 해석하고 풀이하는 후대의 2차 텍스트들의 총합이랄 수 있다. 따라서 고전을 새로 읽고 쓰는 저자 중 한 사람인 권용선의 말을 빌리자면 '말들의 배치를 바꾸는' - 작업은 언제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에 나온 세 권의 책은 동서 고전을 가로질러 연암과 니체와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를 다시 읽었다.





◀◀고병권 ◀◀권용선 ◀◀고미숙

그린비에서 리라이팅 클래식을 함께 내셨는데요, 먼저 세분의 인연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고미숙.** 우린 인연이 각별하죠.(웃음) 수유리에 조그만 제 연구실이 있을 때 고병권 씨에게 국문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니체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어요. 고병권 씨는 첫 강의할 때 25페이지 강의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감동시켰죠. 현재 연구실이 굉장히 커졌는데 그 모임이 시발점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서사연(서울사회과학연구소)이 헤쳐모여 할 때 동송동에 나오면서 합쳐졌어요. 그때 모두 만나게 된 거죠.

수유연구실의 특징에는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연구활동을 하시나요?

**고병권.** 저희 인터넷 주소가 트랜스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학제간 연구와 저희를 혼동하는 거 같아요 트랜스라고 하는 건 자기 분야의 지식을 서로 나눠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될 수 있는 걸 염두에 두는 거거든요. 문학을 하는 사람이 철학을 할 수도 있고,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이 사회학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의식이겠지요. 몇 개의 영역을 거쳤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트랜스입니다. 우리는 분업을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공동으로 해결할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니체를 공부할 때 연암으로 인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공간은 그런 점에서 잠재력이 많아요. 아직 진가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봐요. 리라이팅 클래식은 그 첫 출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을 받으며 어디로 발전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 이 것이 끝날 때쯤 뭐가 나오겠죠.

현재 진행중인 강의는 어떤 게 있습니까?

**고미숙.** 동의보감강좌가 있어요. 강좌가 봄가을에는 조금 적은 편이에요. 여름과 겨울에는 박노자 같은 분들이 강의를 많이 하고 싶어해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황대권 씨의 강의도 추진중이고요.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많은 분들을 친구처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이 공간의 장점이지요.

책 이야기를 좀 해보죠

**고미숙.** 자본론이 원래 1번으로 기획되었어요. 그런데 출판사에서 열하일기라는 텍스트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고 깊이 반성하는 의미에서 맨 앞자리에 놓인 거예요.(웃음) 연암은 연구실에서 공부하면서 만나게 됐습니다. 연구실에 와서 열하일기를 만나 몰입하게 되었어요. 몰입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새로운 상상을 했어요. 말하자면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한 연구실의 조건과 트랜스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니체에 빠진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

**고병권.** 전 순진했던 거 같아요. 전 니체를 통해 무게와 깊이가 다른 것이라는 걸 알았지요. 무게와 깊이의 문제는 다른 것인데, 저는 무거워지기만 하고 깊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실제 문제의식이 래디컬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모든 저술자들은 자기검열에 엄격한데, 권용선 선생님은 책 작업을 하면서 어땠습니까?

**권용선.** 문학 텍스트를 읽을 때나 쓰고 있을 때 자기 감시를 대단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내가 제대로 읽고 제대로 쓰고 있는지 늘 자기 검열을 하죠. 그 과정에서 임의적으로 삭제한 것들이 많아 아쉽습니다. 근대에 관심이 많은 저는 사람들이 해석한 근대를 공부하면서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 작업도 그런 산물이에요.

고미숙 선생님은 요즘 현대문학보다 고전문학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고미숙.** 지금은 고전문학에 관심이 많아요. 사실 문학 평론을 안 한 지 꽤 되었어요. 요즘의 텍스트에 대해서 말하는 건 재미가 없어요. 대개가 청탁을 받고 쓴 글들인데 냉소적인 면이 있었어요. 냉소와 공격을 통해서 뭘 표현한다는 것은 참 허망한 일거든요. 고전을 보다가 현대물을 보면 텍스트가 너무 쉬워요. 문제의식이 비비 꼬일 것도 없이 대개가 쉽고 뻔히 보여요. 그런 식으로 글을 쓰면서 자기를 표현한다는 건 굉장히 빈곤한 일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새로운 경계를 확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미련을 버리고 오히려 저는 시간의 장벽에 가려진 고전을 현실로 불러내는 주술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고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미숙**·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세련되고 충격적인 작품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고전을 시간 속에 가두고 반대로 보고 있어요. 그 당시의 독자나 작품이 가졌던 힘 이런 것을 불러낼 수 있다면 지금 나오는 자잘한 텍스트 수천 편과 맞먹는 위력이 있는데 이걸 놓치고 있는 것이죠.

고병권 선생님의 책을 보면 니체에 갖고 있는 이미지가 상당히 다르게 부각되고 있던데요.

**고병권**· 니체에겐 신화화된 이미지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니체는 굉장히 따스하고 유머러스한 사람이에요. 패러디 같은 것도 많이 썼어요. 차라투스트라도 상당히 재미있게 패러디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 이런 알려져 있지 않은 것들을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서로의 책에 대해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권용선**· 고병권의 니체 강의를 들으면서 인문학 공부한 사람들은 니체가 이런 거였나 화들짝 놀라 니체를 다시 들여다보죠. 고병권의 입에서 나오는 니체는 아주 즐겁고 유쾌해요. 실제로 병권이가 니체를 말하는 걸 봐야 해요. 책으로는 다 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쉽죠.

이런 식의 글쓰기에 대해 반감을 갖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고병권**· 제가 철학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사조를 잘 모르니까 자유롭게 읽은 측면이 있어요. 저는 주류가 아니고 주류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오는 느낌을 그대로 쓰거든요. 비판하는 분들은 보통 이게 맞는 해석이냐고 그래요. 제 식대로 읽었고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단점일 수도 있지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유 연구실이 책 작업을 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보십니까?

**고병권**· 저희들 책에는 수유 공간과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두 스며들어 있어요.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이 공간을 에워싸죠. 니체도 조각을 하면 어느 토양의 흙을 가지고 조각했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죠. 이 공간에서 밥을 같이 먹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이

렇게 나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제 책을 끝까지 읽고서 평한 사람을 못 만나봤어요. 니체를 읽는 계층은 좀 더디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열하일기에 대해 이야기 하신다면?

**고병권**· 당시의 독자들은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열하일기 원전을 읽으면 중국어 백화체가 반이 넘어요. 그래서 번역이 잘 안 된대요. 그런데 원전이 대단히 재미있어요. 연암이 문장에서 자기의 속내를 아낌없이 드러내니까요. 열하일기는 유머와 패러독스가 지혜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텍스트예요. 이제 책을 내고 보니 제가 열하일기가 가진 진실을 십분의 일쯤 표현했다 싶어요. 하지만 이렇게 멋진 텍스트를 만나 아주 부자가 된 느낌이 들어요. 아주 운이 좋은 편이죠.

책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죠.

**고병권**·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확고한 믿음도 한번 뒤집어보면 의외로 연약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수유연구실이라는 공간은 대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들 주체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연구실의 교육기능,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내용들을 다양한 형식에 담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용선**· 제가 소박하게 생각하는 연구실의 의미는 공부와 실천을 함께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먹거리와 입고 생활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이 공간에서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이것은 지식인의 실천과도 연결되는 것이겠죠. 무엇보다 연구실이 어떤 곳이나 이곳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백인백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이 공간의 자유로움과 장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에 함께 있는 것이구요.

공간을 함께 점유하되 소유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 함께 읽고 자극하고 깨달으며 지식을 실천해 나가는 이들 세 사람이 앞으로 또 어떤 풍요로운 학문의 경계를 만들어 나갈지 자못 궁금해진다. **김민**